

목표 800명 넘어 856명 특화훈련 확정

전북인자위, 전년 대비 2배 확대·12개 직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25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차 공모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면밀히게 심사한 결과, 14개 특화훈련 과정에 31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2025년 전북인자위의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1차, 2차 공모를 종합하여 총 856명 규모로 확정됐으며, 당초 목표인 800명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선정된 총 12개 직종 38개 특화훈련 과정은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성됐다. 특히 지역의 핵심 지원 산업인 건설업, 자동차 부품, 식품 산업과 더불어 스마트 농생명, 미래 수송·기계, 정보통신융합 등 육성 산업을 포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훈련을 운영하며, 건축시공·용접·전기공사 등 전통 산업 분야부터 정보기술개발·스마트물류 등 첨단 분야까지 12개 직종에 걸쳐 다양

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모든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다.

전북인자위는 더 많은 구직자, 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취업·창업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인자위 관계자는 “이번 특화훈련을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

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며 “특히 정보통신융합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통해 전북이 국가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과 모집 안내는 고용24(www.work24.go.kr) 및 전북인자위 홈페이지(www.jbh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혁신신탁은 신탁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주 만성지구 일대에서 '전북신탁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환경보호 플로깅 프로그램 진행

전주혁신신탁, 만성지구 일대서 'ESG 경영' 실천

전주혁신신탁(이사장 임승기)은 신탁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주 만성지구 일대에서 '전북신탁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소나기가 지나갔음에도 '전북신탁 ESG 경영'을 실천 위해 전북지역본부 강연수 본부장과 전주혁신신탁 임승기 이사장을 비롯한 22명의 임직원이 거리로 나섰다. 두 팀으로 나뉘어 대로변과 사무실 인근 만성북로 일대를 정화 무분별하게 버려진 비닐봉지, 플라스틱 페트병, 휴지, 담배꽂초 등과 같은 쓰레기를 수거·분리 배출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

월 1회 인근 거리를 청소해 환경 보호에 힘을 예정이다.

이번 플로깅 프로그램은 '전북신탁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경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친환경 경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전북신탁 임직원은 모든 회의에서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시행해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해 종이문서 사용을 자제해 ESG 경영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17일 전북신탁 Family-Day 행사에 'Save the Earth' 슬로건을 앞세운 ESG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오상근 기자

2025년 선도기업 대상, ESG

취약항목 개선 지원사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025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선도기업의 시급하고 효과적인 ESG 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기업별 취약항목을 집중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환경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중대재해·품질·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이며, 기업당 최대 4,500만원(기업부담금 20%, VAT 별도)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동일 사업을 통해 16개 선도기업에 총 5억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기업당 영역별 평균 1등급 이상 등급이 향상됐다. 일부 기업은 전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10% 줄이고 전력 사용량을 25%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지원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선도기업은 29일 오후 5시까지 전북테크노파크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육성체계'(JBLC, www.jbcl.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종환 단장은 "ESG 역량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의 거버넌스와 환경경영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MEGA US EXPO 2025’ 박람회 참가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역대 최대… 호치민에 도내의 중소기업 약 173개사 참여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호치민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28개 혁신기관·대학(전국 테크노파크 11개,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6개, 전국 창업지원대학 10개 전북혁신기관 1개소)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25 메가어스 엑스포를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밝혔다.

MEGA US EXPO 메가어스 엑스포 2025는 HCMC DST(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며 올해로 4년차를 맞아, △부스 전시 △한베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유니브스타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유치 IR 프로그램 벤처스타 △Conference △베트남 트렌드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본 행사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

터 국제 전시회로 인증받으면서 올해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었다.

올해는 전북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학교 및 전국 28개의 창업지원기관과 140개사의 스타트업(24년 :26개 기관 166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특히 전국의 11개 테크노파크(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TP) 및 지원기업 40개사가 함께 참가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북을 포함한 전국 11개 테크노파크의 지원기업의 참가와 더불어 향후 수출지원 활성화를 위한 TP·SI-HUB(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 등 현지 기관과의 MOU 체결식도 진행하게 되는데, 기술지원,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를 위한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향후 기업들의 산업별 수출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MEGA US EXPO 메가어스 엑스포 2025 참가를 계기로 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기업·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엑스포는 도내의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여, 동남아 시장과의 전략적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올해로 4년차인 이번 2025 MEGA US EXPO에 전국의 11개 테크노파크와 지원기업들이 함께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업 수출통상 전략세미나 개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 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관에서 '탄소기업 글로벌 수출통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탄소소재·부품 분야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수동 글



로벌경쟁 전략 연구단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베트남 SECUTECH 보안기술 박람회’

전북TP, 우수 재난안전기업 5개사 한국공동관 참가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4~16일,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베트남 SECUTECH 보안기술 박람회(Secutech Vietnam 2025)에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재난안전기업 5개사와 함께 통합한국관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SECUTECH 보안기술 박람회는 산업용 보안, 화재·안전, 스마트 빌딩, 주차 기술 솔루션 등 분야를 망라하는 동남아시아 대표 보안·안전 산업 전문 전시회다. 2024년 기준 19개국 460개사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공안부, 건설부, 상공회의소, 소방 및 구조 협회 등 관계자 15,5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국제적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전시 규모는 약 13,000㎡로, 정책·규제 동향 파악과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최적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3개 지자체(경기·전북·경남)가 총 26개 기

업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공동 운영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 재난안전기업 제품·기술 홍보관 행정안전부 정책홍보관 비즈니스 상담회장 등을 마련했다. 또한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을 지원했으며, 베트남 현지 공공기관·협회와의 협력 미팅을 통해 국제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수출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전북에서는 △무인파괴방수차를 개발한 ㈜진우에스앤씨 △AI 기술과 안전분야를 융합한 스마트 물관리 및 도시첨수 예보기술을 선보인 ㈜베이지인웍스 △탄소웨이팅이 적용된 침수예방 수중펌프·입출펌프·게이트 펌프를 개발한 ㈜한성산기 △직식식 화단개를 개발한 ㈜원지 △이동식 튜브형 섬유복합 차수제품을 개발한 ㈜글든포우가 참가했다.

/오상근기자

